

# 부동산 부진에 가계대출 1년 만에 감소세 전환

3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 1099조  
한 달 전 보다 1조6000억 줄어  
주담대 5000억 늘어 증가세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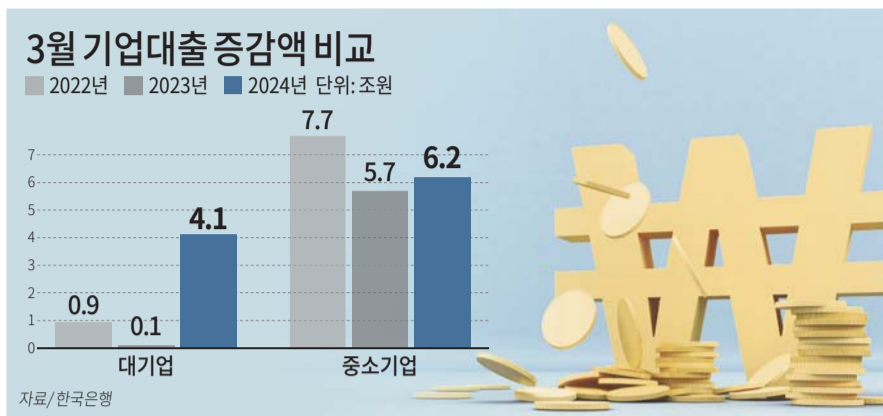
은행, 가계 대신 기업 대출 늘려  
대기업대출 잔액 4조1000억 증가

1년 만에 가계대출이 감소세로 돌아  
섰다. 부동산 시장 부진에 주춤하며 주택매  
매 거래가 줄고, 여전히 대출금리가 높  
아 부담이 이어진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24년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  
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98조6000억원  
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1조6000억원 줄  
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4월 2조3000억원 증가한  
것을 시작으로 10월 6조7000억원까지  
증가했다. 12개월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 ◆ 주담대 5000억원 증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달 주택담  
보대출(주담대)을 받는 비중이 평균치  
를 밑돌았다. 주담대 잔액은 860조5000  
억원으로 전달 대비 5000억원 늘었다.  
2022년 3월 2조1000억원, 2023년 3월 2  
조3000억원이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4  
분의 1 수준이다.



원지한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  
은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인한 거래 감  
소, 고금리 부담, 총부채원리금상환비  
율(DSR) 규제 강화 등이 맞물리며 주  
담대를 찾는 이들이 줄었다"며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DIG) 정책대출이 자체재원으로  
공급되고 전세자금 수요도 감소하면  
서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고 말했다.

통상 주택도시보증공사(DIG) 정책대출(보증  
대출)은 매년 2월부터 5월까지 자체 재원으로  
대출을 공급하다 재원 소진시 은행  
재원을 통해 이차보전방식으로 대출  
을 공급한다.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비중도 줄었지  
만, 평균 은행에서 이차보전방식으로  
공급한 대출(월평균 3조원)이 집계되지  
않으면서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는 분  
석이다.

카드론 등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  
출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기타대출 잔  
액은 23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10월  
추석연휴를 포함한 긴 연휴시기를 제외  
하곤 2021년 12월부터 감소했다.

## ◆ 기업대출, 10조4000억원 증가

반면 기업대출은 연말을 제외하고 지  
속 증가했다. 지난달 기업대출 잔액은  
1272조8000억원으로 한달 새 10조  
4000억원이 늘었다. 가계대출로 수익이  
줄어든 은행들이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을 늘리고, 업황 회복으로 기업들의 자  
금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기업대출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달 대기업대출 잔액은 260  
조4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4조1000억  
원 증가했다. 대기업 대출은 2022년 3월  
9000억원, 2023년 3월 1000억원 늘었

다. 올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1012조4000억  
원으로 6조2000억원 늘었다. 원 차장은  
"은행권의 대출영업이 확대되고, 중소  
법인의 법인세 납부수요가 발생해 증가  
폭이 확대됐다"며 "은행들의 기업대출  
확대전략과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맞물  
리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 ◆ 시중자금, '수시입출식예금'으로

시중의 자금은 은행의 수시입출식예  
금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이상의 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이  
사라지고, 금리인하 예상 시점이 불확실  
해지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일  
시적으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은행의 수시입출식예금잔액  
은 926조8000억원으로 한달 새 48조  
5000억원 늘었다. 매년 3월 수시입출식  
예금잔액은 2022년 16조3000억원,  
2023년 12조5000억원 늘었다. 올해 3배  
가량 증가한 셈이다.

반면 정기예금은 같은 기간 13조  
3000억원 감소한 99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원 차장은 "은행의 자금조달  
유인이 약화되며 정기예금이 감소하고  
있다"며 "지난달 정기예금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의 대규모 만기도래가  
이어지며 상당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카드 News

### NH농협카드

## 2023 연도대상 진행 남서울농협 등 대상

NH농협카드가 지난해 우수실적을  
달성한 임직원 및 사무소를 격려했다.

### ◆ 우수 직원 시상, 자긍심 고취

NH농협카드는 서울 용산구 노보텔  
엠버서더에서 '2023 NH농협카드 연도  
대상'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여영  
현 상호금융 대표이사, 윤성훈 NH농  
협카드 사장 등 임직원이 참석했다.

2023년도 시상식은 ▲개인 부문  
(164명) ▲사무소 부문(14개소) ▲명  
예의 전당(2명) 등으로 분류했다. 개인  
부부는 문인제 NH농협은행 포스코대  
로지점 과장보와 오성근 서울농협  
과장보가 대상을 수상했다. 사무소 부  
문 대상은 ▲남서울농협과 ▲북부산농  
협 ▲원주농협 ▲순천광양축협(이성기  
조합장) ▲광양농협 ▲진북농협 등이  
받았다.

### KB국민카드

## 라이프 서비스 확장 KB페이 범용성 홍보

KB국민카드가 KB페이의 범용성을  
홍보했다.

### ◆ '결제서 라이프까지 KB페이' 강조

KB국민카드의 배우 박은빈이 출연  
한 신규 광고를 공개했다고 11일 밝혔  
다. 이번 광고는 짧지만 중독성 강한  
메시지를 반복한다.

광고 구성은 상황을 설정해 묻고 답  
하는 형식이다. 'KB페이' 광고만의 차  
별화 자산이란 설명이다. ▲쇼핑 ▲항  
공·호텔 ▲내 차 관리 ▲골프 레슨 ▲운  
세 보기 등 라이프 서비스 확장성에 초  
점을 맞췄다. 결제에서 생활영역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음을 전달한다.

신규 광고와 프리퀀 영상은 KB국민  
카드 공식 유튜브 채널과 케이블TV 등  
에서 만날 수 있다.

### 신한 비자카드

## 로얄캐리비안크루즈 온보드 크레딧 제공

신한카드가 비자(Visa) 브랜드카드  
로 크루즈를 예약하면 포인트를 제공  
한다.

### ◆ 20만원 수준의 포인트 지급

신한카드의 오는 30일까지 로얄캐리  
비안크루즈 한국총판에서 '온보드 크  
레딧' 제공 행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  
혔다.

온보드 크레딧이란 승선 전 사전 예  
약 및 선내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의미한다. 행사 기간 내 로얄  
캐리비안크루즈에서 크루즈 예약완료  
후 신한 비자 카드로 1000달러 이상을  
결제하면 150달러의 온보드 크레딧을  
지급한다.

혜택은 2024년 이내 출발하는 로얄  
캐리비안크루즈와 셀러브리티크루즈  
일정이라면 모두 적용된다.

/김태환 기자 kdh@

/김정산 기자 kimsan119@

# 美 소비자물가 지속 상승... '금리인하 신중론' 우세

## 3월 CPI 전년 동월 대비 3.5% ↑ 6개월來 가장 높아 예상치 상회 '금리인하 이르면 하반기 시작'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상반기 금리인  
하 기대감이 낮아졌다. 미 연방준비제  
도(Fed·연준) 위원들 역시 금리인하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전문가  
들은 금리인하 시작을 이르면 하반기  
로 전망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  
는 지난 10일(현지시간) 3월 CPI가 전  
년 동월 대비 3.5% 상승했다고 밝혔  
다. 지난해 9월(3.7%)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시장 전문가들의 예  
상치(3.4%)를 상회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  
한 근원 CPI 상승률도 전월 대비 0.  
4%, 전년 동월 대비 3.8% 올라 시장 전  
망치(0.3%, 3.7%)보다 높았다.

미 CPI 상승률은 지난해 9월 3.7%  
에서 10월 3.2%, 11월 3.1%로 떨어지  
면서 순조롭게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 기조를 이어갔다.

지난해 연말에는 이르면 3월부터 기  
준금리 인하를 시작 할 수 있다는 기대  
감이 높아지면서 채권값과 주가가 동  
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4%로 다시 상  
승전환 했고, 올해 1월 2%대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과 달리 1월 3.1% 기록, 2  
월 3.2%, 3월 3.5%를 기록하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CPI는 연준이 향후 금리 인하 시점  
을 가늠 할 수 있는 지표로 시장의 관심  
을 받는다.

또한 미 연준이 같은 날 공개한 3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서도 금리인하  
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의사록은 "회의 참석자들은 강한 경  
제 모멘텀을 가리키는 지표와 실망스  
러운 인플레이션 지표에 주목했다"며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안  
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더 강한 확  
신이 들기 전까지는 기준금리를 인하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언  
급했다

이어 "모든 참석 위원은 경제가 예상  
경로로 움직일 경우 연내 어느 시점에  
선가 긴축 정책을 완화하는 게 적절하

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연준이 물가 상승률의 목표치를 2%  
로 제시한 만큼, 6월 금리인하는 사실  
상 물건너가 이르면 하반기 시작할 것  
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는 연준이 오는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확률은 81.3%, 9월 인하 가능성은  
66.2%로 예상했다.

연내 금리인하 횟수 역시 9월 0.25%  
p 인하 1회로 제시해 이전보다 금리인  
하 기대가 크게 낮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연준은 오는 5월, 6월, 7월, 9  
월, 11월, 12월까지 6차례의 FOMC 회  
의에서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민간아파트 분양가 24% 급등... '청약 옥석가리기' 심화

## 원자재값 상승에 건축비 인상

최근 원자재값과 인건비 인상 등으  
로 공사비용이 오르면서 분양가가 급  
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민간아파트 2월 평균 분양가가 1년 만  
에 24% 이상 상승한 가운데 수요자들  
사이에서 '지금 가장 싸다'라는 말이  
유행처럼 돌면서 청약 옥석가리기가  
심화하는 모양새다.

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  
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  
르면 지난 2월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

는 3.3㎡당 1770만7800원으로 집계됐  
다. 전월 분양가(1743만7200만원) 대비  
2%(27만6000원) 오르며 12개월 연속 상  
승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동월 분양가  
(1560만2400만원)와 비교하면 약 14%  
(210만5400만원) 올랐다.

2월 서울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3780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  
분양가(3044만5800만원) 대비 24%  
(735만5000원) 올랐다. 전용면적 84㎡  
기준 새 아파트의 분양가는 13억원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HUG가 발표하는 월별 평균 분양가

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  
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격을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급등한 것으로 분석  
한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시멘트 1톤  
(t)당 가격은 지난 2020년 6월 7만5000  
원에서 2021년 7월 7만8800원으로 오  
른 이후 2022년 2월 9만2400원, 11월  
10만5400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11월  
에는 11만1000원으로 추가 인상됐다.

원자재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기본형  
건축비가 크게 인상됐다. 올해 3월 기

/김태환 기자 kdh@

/김정산 기자 kimsan119@